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d.org)
 사무실: 3447-0750~1 팩스: 3447-0752

주 임 신 부 : 주경수(세바스티아노)
 1 보좌신부 : 서기원(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이정미(마르첼라)
 정정순(큰체사)
 박선옥(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장병철(율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 일 미사 전 30분 평 일 미사 전 15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관면헌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소 식

금주의 성경 암송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 (히브13,16)

- **축 하 드 립 니 다**
 * 6월 29일(수)은 서기원 바오로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병자안수 축복식: 6월 26일(주일) 교중미사 후**
- **성모 신심 미사: 7월 2일(토) 오전 6시**
- **유아 세례: 7월 2일(토) 오후 5시, 2층 대성전**
- **평일 저녁 미사 장소 변경**
 * 본당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7월 1일(금) 저녁미사부터 평일 저녁미사는 1층 프란치스코 홀(구 소성당)에서 봉헌됩니다.

● **6월 예비신자 모집 안내 (세례일: 12월 10일)**

요 일	시 간	교리 담당	장 소
수요일	저녁 8시	서 바오로 신부	1층 프란치스코홀
주일반	오전 9시 20분	정 큰체사 수녀	지하 성가정방

- **어르신 방문 교리 신청 및 봉사자 모집**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환자분들 대상으로 방문 교리를 접수받습니다.
 * 신청 및 문의: 원장수녀 또는 김 요안나(010-3724-1607)
- **시니어 아카데미 종강미사 및 종강식**
 * 종강미사: 6월 29일(수) 오전 10시
 * 종강식: 10시 미사 후, 1층 프란치스코 홀
 * 2학기 개강식: 8월 24일(수) 오전 11시 40분
- **남성 자비의 모후 Pr. 창단 모임 안내**
 * 일시 및 장소: 6월 26일(오늘) 오후 3시
 * 주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지하 기쁨방)

- **2016년 청년 여름 캠프 신청**
 * 일시: 7월 8일(금)~ 7월 10일(주일) 2박3일
 * 장소 및 회비: 홍천 가람 리조트 / 회비 5만원
 * 신청마감: 6월 30일(목)까지 / 사무실 또는 청년연합회
 * 문의: 오 아우구스티노(010-6438-1275)

- **중·고등부 주일학교 캠프 신청**
 * 일시: 7월 22일(금)~ 7월 24일(주일) 2박3일
 * 대상: 중1~고2 모든 대상자(비신자 가능)
 * 접수마감: 7월 10일(주일)까지, 회비 5만원
 * 신청문의: 사무실, 윤 마르치아노(010-8600-6950)
- **42차 산악 동호회 '수락산' 산행**
 * 일시: 7월 2일(토) 오전 8시 30분 출발, 성당마당
 * 준비물: 회비 1만원
 * 문의: 김 사도요한(010-8592-7514)
- **바보회 회원들을 위한 봉헌미사 및 회원모집**
 * 봉헌미사: 7월 3일(주일), 9시 미사
 * 월례회: 매월 첫째 주일 2시 지하 평화방
 * 문의: 서 엘리사벳(010-7277-6285)
- **매일 교황님의 강론과 함께**
 * '바티칸 방송국' 한국어 서비스에서는 매일 교황님의 강론과 삼종기도 훈화, 바티칸의 동정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으니 영적 성장을 위해 많은 이용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kr.radiovaticana.va/>
- **여름철 미사 참례 시 옷차림과 자세**

* 성당에 올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 소매 없는 옷, 슬리퍼, 짧은 반바지, 미니스커트와 같이 노출이 심한 의상은 삼갑시다.
 * 성가책, 기도서, 주보 등으로 부채질을 삼갑시다.
 * 성당 내에서는 다른 분들께 방해되지 않게 침묵합니다.
 * 휴대폰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꺼둡시다.
 * 일찍 온 순서대로 앞좌석부터 앉습니다.
 * 성당 안에서는 모자를 벗습니다.
 * 성당에 올 때는 자동차 이용을 자제합니다.

- **휴가철 피서지 인근 성당 안내**
 * 7월 매일 미사책 p 185~203 참조
- **6월 26일(오늘): 교황 주일 2차 헌금**

모 임

- 6월 26일(주일): 독서단
- 6월 27일(월): 성령 기도회(강사: 안영주 도미니카)
- 6월 28일(화): 연명회 / 여성단체 협의회
- 7월 1일(금): 제대회 / 남성구역 / 예비신자봉사회
- 7월 2일(토): 복사단 자모회 / 청소년분과

성가번호 입 당: 55 예물준비: 성가정성가, 209 성 체: 188,178,173 파 견: 본당가



주 님 당 신 은 제 몫 의 유 산 이 시 습 니 다.

‘바로’ 영성

20대 중반,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만나고부터 나는 내가 내 마음에 들도록 나를 가꾸는 방법을 배워 훈련하였다. 고치고 싶은 덕목이 있다면, 누가 보고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한결같이 행동하되 몸에 붙을 때까지 반복하라고 되어있다. 실제로 언어습관, 옷 입기, 의지를 실현하기, 미루지 않는 습관 붙이기 등등 내가 고치고 싶은 덕목은 줄줄이 이어졌다. 알면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 도표를 작성하고 날마다 단계별로 점수를 매겨가며 꾸준히 고쳐나가다가 서서히 다른 습관 길들이기로 넘어간다.

젊은 날, 출판사의 편집디자이너로 일할 때, 나의 일감이 없을 때가 있다. 책이 기획단계에 있거나 본문이 진행 중이라도 그림이 내 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일이 거의 없는 편이다. 비록 나중에 화보며 광고로 정신없이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일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라면 손 댄고 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기를 바랄 것 같아서 서고로 들어갔다. 자료를 찾으라고 어지럽혀 놓은 책들이 보였다. 책을 만들고 돌아온 필름도 아무렇게나 서랍에 들어가 있다. 나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일에 동참하였다. 주인이 잘 돼야 내 봉급봉투가 두꺼워질 것이란 생각은 옳았다.

서고에 들어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줄도 모른다. 채근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드나드는 사람도 드물다. 내 양심이 나를 보고 있을 뿐이다. 전 직장인 학교에서 나는 도서관을 정리해본 경험이 있어서 필름 자료를 한 봉투에 넣어 제목을 쓰고 각 서랍 앞에 목록을 적어두었다. 하나씩 정리 될 때마다 일로부터 오는 희열감이 느껴져서 내 일이 밀려들 때까지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사장이 순시 하던 중 서고에 들어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일에 몰입되어 있다가 허리를 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뒷짐을 진 사장이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분도 쓸 만한 물건을 쓰레기통으로 넣지 않는 분이다. 강요는 하지 않지만, 가만히 챙겨다 내 책상에 올려놓으며 언젠가 쓸 테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주인과 사원의 차이를 나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 날 서고에서 만난 사장은 그냥 미소만 짓고 나갔지만, 얼마 후 “오 선생은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들었다.

스스로 인생의 완성도를 높여 살기를 꿈꾼 나에게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감동스러운 일화도 곁들여지지만, 혼자 있을 때나 누가 지켜볼 때나 다름없이 묵묵히 제 길을 가는 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나는 안다.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고 허락한 일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도록 애를 쓴다. 누군가는 나더러 ‘바로 영성’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 또한 남이 붙인 것이니 관여치 않기로 한다. 푸른 선글라스(영성의 시각)를 낀 여자로 늘 안경알을 닦으며 시야를 맑히려고 노력한다. 자칫 게으르다가는 안경알을 닦지 않아서 시야가 흐린 줄도 모르고 안경 닦하기가 쉽다.

판단은 오직 한 분 하느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질서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판단하기 바쁘다. 모두가 영역을 넘보는 불경 죄인들이다.

<문화홍보분과 위원 1구역 5반 오정순 알비나>

♣ 환경 개선 봉헌금 (※목표액: 3억원)

환경개선 봉헌금 (6 / 21 현재)	
익 명	100,000
총 누 계	163,699,000 원

♣ 청담동 성당 성물 봉헌금

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성물 봉헌금 (6 / 21 현재)	
총 누 계	87,250,000원 / 355명
※ 아름다운 청담동 성전을 위한 성물봉헌을 위해 교우분들께서 10만원씩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사무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목		감사헌금 (6 / 21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25,735,000	박 요셉피나	50,000	한 로사	100,000	총 세대수	3,818
주일 봉헌금	12,240,200	곽 율리아나	100,000	윤 소피아	20,000	총 납부세대	1,148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6,778,100					지난주 납부세대	10
성소 후원금(7건)	104,000	합 계: 270,000원				지난주 납부율(%)	30.1%